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판-타지



국립극단

❖ 이 공연은 2021년 (재)국립극단의 [창작공감: 연출] 공모를 통해 선정, 개발되었으며
2021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창작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 공연은

『거부당한 몸(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수전 웬델, 강진영, 김은성, 황지성 번역, 그린비, 2013,
p.318, p.321, p.325 (Murphy, The Body Silent, p.100-101 재인용)

『리처드 3세』(윌리엄 셰익스피어, 김중환 번역, 도서출판 동인, 2014, p.212-214)

『퍼포먼스 퍼포먼스』(다이애나 테일러, 용선미 번역, 나선프레스, 2021, p.35, p.327)
를 인용하였습니다.

2021 [창작공감: 연출] 작품개발단계 연혁

YY	MM	DD	
2021	01-03		공모 및 연출가 선정
		04 01	오리엔테이션
	04-07		정기/수시 모임, 리서치
		05 12	강연: 코다(CODA)에 대하여, 이현화
	06	24	공동체상영회: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조한진희
		07 14	관계자 대상 - 리서치 발표회
	07-11		워크숍 및 연습
		08 29	특강: 다큐멘터리 연극, 전강희
	09	03	특강: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 김원영
		11	창작과정공유 @국립극단 소극장 판
	12		의견수렴과정
2022	01-04		본 공연 연습
		03-05	본 공연 @국립극단 소극장 판



02 운영위원의 글

04 줄거리

05 구성·연출의 글

06 출연진

08 스태프 프로필

10 작품이해독기 1
지금 당신 옆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나요?

12 작품이해독기 2
없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14 무대 스케치

15 음악 스케치

16 연습 스케치

18 만드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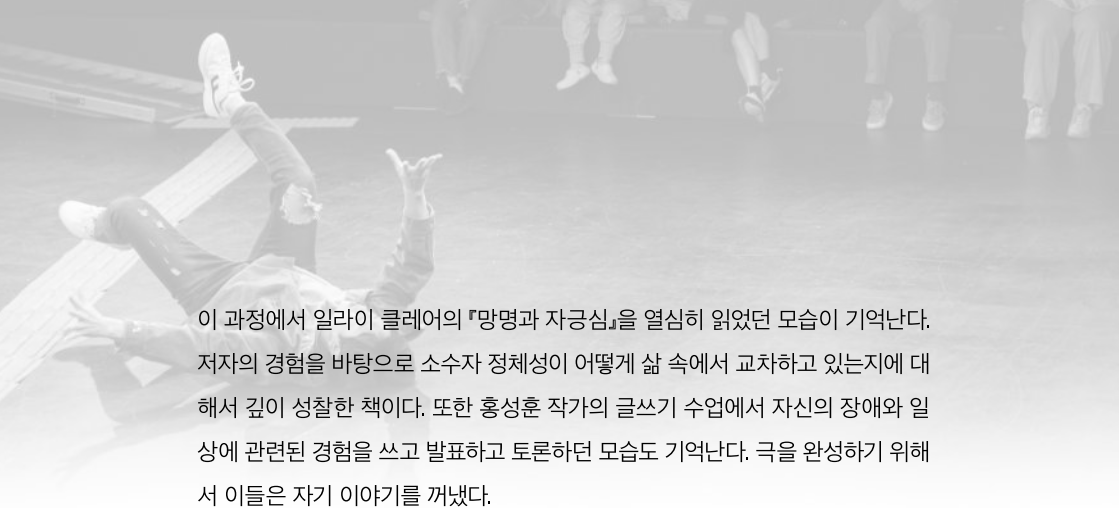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는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창작공감: 연출] 운영위원 전강희

강보름 연출가가 [창작공감: 연출]에 지원하면서 탐구하고 싶은 주제는 미스핏(misfit)이었다. 미스핏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더 넓은 맥락에서 누군가의 행동이 특이하고 이상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연극을 관람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배리어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젊은 창작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이해가 생겨나고 있다.

강보름은 사회가 모두에게 적절한 장소인가를 질문하는 것으로 미스핏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켰다. 극장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았을 때, 이곳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스핏한 장소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수일 수 있다는 단서들을 <소극장판-타지>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소극장판-타지>에는 네 명의 출연진이 있다. 휠체어를 탄 김지우, 시각장애인 배우인 이성수, 청각장애인 무용수인 안정우, 작년 국립극단 시즌단원이었던 배우 고애리가 출연한다. 이들이 극을 만들기 위해 작년에 모여 작업 초반에 했던 일은 책 읽기였다.



이 과정에서 일라이 클레어의 『망명과 자금심』을 열심히 읽었던 모습이 기억난다.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자 정체성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교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책이다. 또한 홍성훈 작가의 글쓰기 수업에서 자신의 장애와 일상에 관련된 경험을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던 모습도 기억난다. 극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 이야기하기 서사’를 중심으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관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 너무 사적인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솔직하게 공유해야 하는가? 등등 많은 고민이 오갔다. 이 시간을 거치며 많은 ‘말들’이 쌓였다. 말들을 자기 고백을 넘어서 이야기로 엮어 객석에 전달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도구는 최종적으로 ‘몸들’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이성수가 고안해낸 춤을 함께 추고, 김지우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두가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리처드 3세 되기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몸들이 점차 상대가 했던 말을 자기 몸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발화하는 몸으로 바뀐다. 네 명의 출연진이 전하는 어떤 말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했을 법한 말 같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의 말 같기도 하다. 차이를 흐리는 말과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말이 무대 위에 함께 있다.

글의 제목에서 던진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는 가능한가?”라는 거창한 질문에 대한 답안 찾기를 이 행위에서부터 시작해본다면 언젠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배리어를 명확히 하고, 또 흐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지닌 힘을 <소극장판-타지>가 목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있다.

“만약 네가 단어 하나를 자주 곱씹어 말한다면
그 단어는 곧 너 자신이 될 거야.”

“If you say a word often enough,
it becomes you.”

이 극장에는 대략 100개, 아니 99.5개의 눈과 100, 아니 101개의 귀,
100개의 손과 50개의 입을 가진 몸이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몸들로, 이 몸들에 대해 말하기를 시도한다.

Inside the theater, there is a body with nearly 100 (99.5 to be precise) eyes,
100 (actually, 101) ears, 100 hands and 50 mouths.
We will now try to talk with and about this body.

“안녕, 어젯밤엔 잘 잤어?
밥은 먹었어? 몸은 좀 어때? 잘 쉬고 있어?”

“Hello,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Have you eaten? How are you? Are you well rested?”



구성·연출 강보름



저는 요즘 한 편의 연극을 만드는 일이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요새는 허리가 아파서 공연의 시놉시스보다 러닝타임이 얼마나 되는지, 등받이의자가 있는 극장인지 먼저 체크하곤 합니다. 과민성대장증후군 때문에 화장실이 없는 극장은 가기 망설여지고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 다종다양한 이유로 극장에 끼워 맞춰지지 않는 다양한 몸들의 ‘미스핏(misfit)’을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각작용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시도할수록 우리의 공연에서 ‘매 순간’ 가능한가? 이것이 야말로 판타지가 아닌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되돌아옵니다. 감각의 시차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무대와 객석의 다양한 몸들이 잠시나마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각자로서, 또 우리로서 공연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소극장판-타지>를 관람하러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애리, 김지우, 안정우, 이성수 배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스태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긴 제작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이기에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며 자주 펼쳐본 책의 문구를 마지막 인사로 전하며 글을 닫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에 대하여. 실제와 은유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강함과 나약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당신의 말을 당신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기 때문에. - 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고애리

Go Ae Ri

연극

<로드킬 인 더 씨어터> <파우스트 엔딩> <어둠상자>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메모리 인 드림>
<B클래스> <소> <그리스의 여인들-안티고네> 외



김지우

Kim Ji Woo

유튜브

'굴러라 구르님' 채널 운영

홍보대사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명예 홍보대사



안정우

An Jeong Woo

연극

<춤의 국가> <관람모드-보는방식>

공연

<빈 집> <Mark 7:34> <7&7>

전시

<무장애예술주간-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성수
Lee Sung Su

연극

<설탕> <내가 더 잘> <세익스피어 파크> <별>
<우리 동네 왜 왔니?> <디제이영의 음악다방>
<관람모드-보는방식> <페티쉬> <당신만이>
<천장은 위에 있고 마루는 밑에 있다>
<아빠가 사라졌다> <서울, 특별한 병구씨>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공연

<각자의 몸, 전체의 리듬> <안심댄스>
<안은미의 159프로젝트>



한국수어통역
신선아
Shin Sun A

연극

<어느 마을> <여기, 한때, 가가>
<제자리에서 정지한 상태로 180도 회전하기>

기타

제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제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한국수어통역
장진석
Chang Jin Seok

연극

<끼리?> <어느 마을> <여기, 한때, 가가> <아가멤논>
<문 밖에서> <시인의 나라> <양반전>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기타

해화동1번지 7기 동인 가을페스티벌

구성·연출

강보름 Kang Bo Reum

연극

연출 <여기, 한때, 가가> <내가 뭐 그렇게 컨템포러리한 사람도 아니고: 사과백화점> <To be Anger-free>
<모던걸타임즈> <우리가 고아였을 때> <레디메이드 인생>
구성 <내가 뭐 그렇게 컨템포러리한 사람도 아니고: 사과백화점> <To be Anger-free> <한대의 극장>
<모던걸타임즈>

무대

송성원 Song Sung Won

연극

<로테르담> <더 나은 숲> <서천꽃밭이야기> <영지>
<아웃오브러브> <너를 만난다> <용종절제술> <구직>
<강진만 연극단 구강구산 결과보고서> <좋아하고있어>
<갈매기B> <사랑과 교육> <제르미날> 외

무용

<한국무용?> <창세무가> <비극: 내일을 위한 우화>

조명

박유진 Park Yu Jin

연극

<세븐 썬> <화성은 수원에서 하나도 안 멀다> <영지>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변신>
<마음의 범죄> <마트료시카> <육망이론-배반의 장미>
<끌 수 없는 불꽃> <오를라> <테이레시아스의 눈> 외

무용

<한국무용?> <탈춤의 목적>

음악

오로민경 Oro Min Kyung

연극

사운드 디자인 <우리집에 놀러와>

무용

사운드 디자인 <비워있는, 가득한>
<흐르는 벽으로 대화하기> <기억의 자리>

공연

연주 <돌, 빛, 결> <울산 신음악> <Sounds Night>
<작은 새의 당신과 무너지던 밤의 소년이 또 당신에게>
<Borderless> <RTA>

사운드

목소 Morceau J. Woo

연극

<콜타임> <탈피> <머핀과 치와와> <로테르담>
<그 나쁜 선악과는 어떤 XX가 따먹었을까?> <영지>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집집 : 하우스 소나타>
<유니버설 스튜디오> <홍평국전> <도덕의 계보학>
<이홍도 자서전 (나의 극작 인생)> <스푸트니크>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피어리스:더 하이스쿨 맥베스>
<인정투쟁: 예술가 편> <너에게> <7번 국도> 외

움직임

고권금 Go Kwon Keum

연극

<지장이 있다> <무릉도원:HERE> <모던걸 타임즈>

공연

<줄 위에 기대어> <버티는 몸 : 기꺼이 그대와>
<버티는 몸: 티라미수> <라 르고> <피어나는 몸>

영상

임리원 Lim Lee Won

연극

<젊은 그대, 그들이 살았던 오늘> <화성은 빨강지 않다>

공연

<탈춤은 탈춤> <소년, 소녀를 위한 소소음악회>

연극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 모두의 탈춤>

의상·소품

이윤진 Lee Yun Jin

연극

<환향> <달갈의 일> <그곳이 멀지 않다> <살인놀이>

<조금 오래된 소원> <클래스> <우리가 슬픈건,>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슈미> <지하6층 엘리스> <시간의 난극>

<마리를 위한 아주 사소한 결정> <달콤한 노래>

뮤지컬

<우리, 집> <말리의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 <라스올라스>

<엘리스 스튜디오> <안녕, 지구> <샘골 강습소 최선생>

보이스·액팅 코치

최정선 Choi Jung Sun

연극

<햄릿의 비극> <인정투쟁; 예술가 편> <복수자의 비극>

<단편소설> <그녀를 말해요> <비포애프터> <필로우 맨>

<어제 보자> 외

강의

現 서울예술대학교 공연학부 연기전공 조교수

前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조연출·음성해설

현림 Hyun Rhim

연극

조연출 <거기 서 있는 남자 시즌3> <말죽거리 예술단>

<거기 서 있는 남자 시즌2> <불혹전>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여행이야기> 외

작·연출 <숫> <우리는 매일매일 ()>

작 <웁이자랑>

출연 <자본2: 어디에나 어디에도> <사시나무 숲>

<대수씨, 어디가요> <토란국이란> <웁이자랑> 외

접근성매니저

김현지 Kim Hyun Ji

연극

접근성 매니징 <여기, 한때, 가가>

드라마투르그 <어느 마을> <여기, 한때, 가가>

<흙 스윗 흙 - 도시시편> <오리울>

기타

‘2021 한국장애인문화원 희곡 발굴 및 낭독 프로그램

유니버설 플레이’ 공동기획 및 진행

영상촬영

조용기 Joe Yong Gi

영화

연출·촬영 <투명한 음악> <위치값 공포증>

<듣다 : 3년 간의 연구> 외

지금 당신 옆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나요?

연극평론가 장윤정

극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설 때까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공연 내내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했음에도 옆 사람들의 면면을 떠올리기란 쉽지 않다. 극장 안팎으로 줄곧 앞만 응시했던 까닭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공연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모였음에도 서로에게 관객이라는 익명으로 남겨졌던 우리를 <소극장판-타지>는 다시 불러 모았다. 작품은 무대로 모이는 시선을 거두어 내 옆자리의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게끔 한다. 그러자 무대와 관객으로만 구성되었던 기성의 연극 질서가 배우와 관객, 관객 결의 관객이라는 세계로 확장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소극장판-타지>는 장애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공연이다. 동시에 세계의 경계를 와해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인다. 장애와 비장애,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 극장 안과 극장 밖, 현실과 판타지, 그리고 각자가 감각하는 세상의 낯선 영역들의 경계를 스펙트럼화한다. 요컨대 극장 안을 서로의 타지로 가득 채워 관객과 배우가 그 속에서 함께 부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감각'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사를 온전히 다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대사 한 마디 한 마디를 곱씹지 않더라도, 그저 '우리' '지금' '여기' '함께' '있음'을 감각할 수만 있다면 <소극장판-타지>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작품은 신체적 장애와 비장애가 스펙트럼으로서의 다른 몸으로 존재할 뿐임을 보여준다. 관객은 서로에게서 정도의 차이일 뿐인 다른 몸들의 현존을 발견하게 된다. 나아가 <소극장판-타지>는 연극의 판타지를 해체하려 시도한다. 완전하고 안전한 닫힌 극장 대신 불완전하지만 나아가야 할 열린 문의 극장을 지향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것은 판타지인 동시에 현실이며, 극장 밖에서도 이어지는

세계임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동시대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대의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존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배려'라는 수식어는 불필요해진다. 대체로 공동체의 일원을 위해 마땅히 수행되어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욕망을 욕망하는 동시대인들의 무대를 통해 <소극장판-타지>는 이 지점까지 사유의 가치를 뽐내나가게끔 한다. 배우와 관객은 함께 행동하며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들으로써 공존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까? 어쩌면 <소극장판-타지>를 횡단하는 오늘날만큼은 서로의 면면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극장 너머에서도 이어질 뜻밖의 내적 친밀감마저 기대하게 된다. 우린 지금 여기 함께 있고, 이견 분명 현실이니까.



없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접근성매니저 김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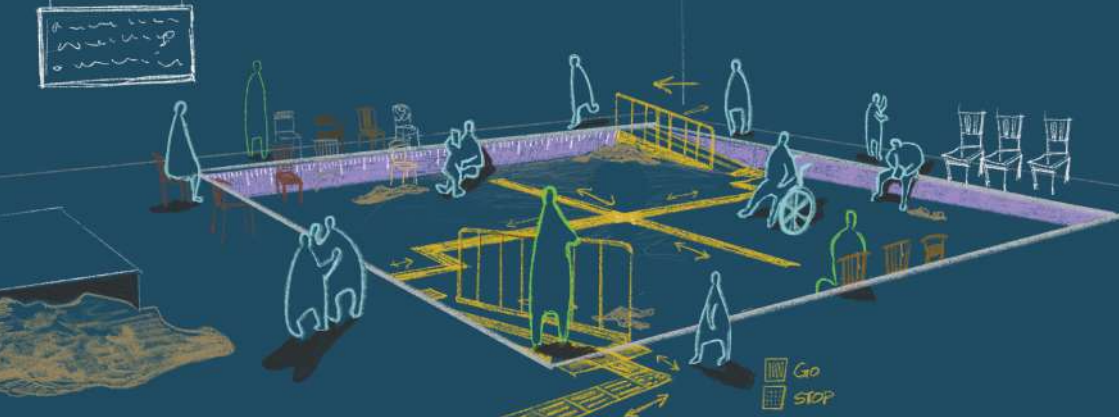
극장에 가는 일은 정말이지 근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약속한 시간에 그곳으로 가면 정성껏 이야기길 들려주니까요. 세상에 연극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래로 수고로운 노동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것은 연극을 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이지요. 극장에서 당신은 수고롭게도 보거나 들은 것을 모르는 체하기를, 거기 앉거나 서 있는데도 없는 척하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를 해내길 기대 받습니다. 공연 중 휴대폰이 울려서 그 연기에 실패하거나 동행한 옆 사람과 속삭이면서 연기의 필요를 무시할 때, 당신은 곧장 극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조명이 꺼지고 우리가 어둠 속으로 숨어들 때-그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기쁨을 주죠- 그래서 마치 일순간 다른 곳에 도착했노라고 믿게 될 때, 그렇게 연극을 위해 '없어'져 버리기로 서로와 약속할 때,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있음'은 이따금 그 연극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슴고 주저하다가 있음을 다시 숨기려고, 거기 있는 체 하지 않으려고, 더 잘 없어지려고 우리의 몸을 극장에 끼워 맞추길 선택합니다. 그럴수록 점차로 극장은 더 잘 끼워 맞춰지는 몸, 여러 얼굴과 외양을 가지기보다 하나의 이름만으로도 쉽게 호명할 수 있는 몸, 특이사항을 가지지 않고 돌발 상황을 일으킬 것이라 우려되지 않는 몸만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때 극장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몸이 규격이나 사정에 들어맞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그 몸 위에 '미스핏(misfit)'이란 판결을 내립니다. 진행을 원활
하지 못하게 하는 몸, 예외로 취급되어 맨 뒷자리 또는 맨 앞자리에 앉기만을 권고
받는 몸, 아무 때나 내키는 만큼 극장을 찾을 수 없는 모든 몸, 그래서 어쩌면 끼워
맞춰지길 희구하기도 하는 솔직한 몸. 이 결격의 신체들은 연극이라는 좁은 문으로
간신히 틈입하는 데 성공하거나, 여전히 연극 바깥에 기거하면서 매일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소극장판-타지>는 그렇게 다른 데(他地)에서부터 모여
든 우리가 진실로 함께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려 했을 때 떠올렸던 지극히 불충분하
고, 어쩌면 의아하고, 그러나 진실한 답변입니다.

이 연극이 말하려는 접근성은 물론 누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가
능성을 가늠하려는 정치의 시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화가 수어로, 소
리가 글자로, 춤이 말로 번역되어야 하리라는 사실이 연극의 심부로까지 초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 왜 어디로 얼마만큼 접근하길 원하는지 그 염원의 표정
을 되묻는 질문 위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번역만큼이나 그 번역의 실패와 부
족함 사이로 끼어드는 우리의 욕심들 역시 당신에게 궁금한 것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언제나 당신의 표정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이제 모르는 체 하기를 관두고
당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연극을 하느라 당신의 있음을 숨기지 않기로 합니다. 당
신의 정돈되지 않는 몸을 극장에 끼워 맞추는 대신에, 어쩌면 극장을 당신에게로 맞
춰줍니다. 아주 성기게 직조되어서 울이 다 나간 판타지, 여기저기 난 구멍 사이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을 만큼 불완전한 판타지 속에서 함께해 보기로 합니다.



무대디자이너 송성원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던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암호같은 기호들이 정보로 인식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미로처럼 보이는 공간이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도가 될 수 있다.’

지도 위 공간은 모두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공터이다.
때로는 어릴적 친구들과 놀던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이는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
그 안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조각이 무대 위에 올려진다.
그 조각들은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쌓아간다.

음악감독 오로민경

<소극장판-타지>에는 다양한 몸의 조건을 가진 창작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몸들과 시간을 보내며 소리와 듣기의 사이, 그리고 듣기와 보기의 사이, 목소리와 이야기의 사이, 다양한 사이의 간격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 간격들 사이에 흐르는 파동을 듣기 위해서 어떤 감각, 마음가짐, 생각, 기술이 필요할까요? 가청 주파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음악은 무엇 일까요?

각자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은 염증 때문에 생기는 진동의 주파수 일 수도 있고, 목청까지 차올랐지만 미처 발화되지 않는 목소리의 떨림일 수도 있고, 눈빛 또는 강력한 동작의 춤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소리들이 내 귀에 음파로 닿지 않아도 각자의 이야기를 지닌 몸이 자신만의 소리에 집중할 때 나올 수 있는 연주의 몸짓이 있습니다. 감박이는 빛의 움직임, 촉각과 공기 사이를 고요하게 흐르는 속도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음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음악의 세계에서의 하모니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나의 몸이라는 가장 가까운 악기에 그 출발이 있을 것이에요. 내 목소리를 바라보고 꺼내는 일이 옆에 앉은 몸에 주는 용기. 통증과 기쁨, 슬픔, 욕망을 충분히 느끼며 성취와 실패 그리고 아름다움에 질문하며 이야기를 만드는 일. 주문을 외우고, 소리를 지르는 시간을 지나 만들 수 있는 초대의 연주를 조심스레 제안합니다. 나의 몸. 그리고 이 공간에 함께 있는 또 다른 몸들과 관계를 맺고, 노크하고, 토닥이고, 쓰다듬는 연주를 상상해 봅니다. 차이와 간격 사이를 운동하는 파동을 따라 함께 쓰다듬고,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듣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연주에는 어떤 연습이 필요할지 질문해 봅니다.





만드는 사람들

출연

고애리 김지우 이성수 안정우

한국수어통역 장진석 신선아(수어통역협동조합)

스태프

구성·연출 강보름

무대 송성원

조명 박유진

음악 오로민경

사운드 목소

움직임 고권금

영상 임리원

의상·소품 이윤진

보이스·액팅 코치 최정선

조연출·음성해설 현림

접근성매니저 김현지

한국어자막·음성해설 작 김현지 강보름

영상촬영감독 조용기

연습문자통역 권지영 김미진 김승희 박보라 박찬홍

이강선 장정수 전승욱 조성진 한상원

(에이유디 사회작협동조합)

한국수어통역 자문 김주희(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무대감독 민상은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음창인

의상감독 박지수

조명오퍼레이터 김주희

음향오퍼레이터 정하윤

영상오퍼레이터 양혜원

무대진행 김영주

의상진행 신은혜

무대제작 세원무대미술(대표 신한영)

의상제작 옷장(대표 이윤진)

의상제작팀 이수진

조명팀 이보경 신희 신경배 고두영 김의연

음향팀 박상준

영상팀 김석기 민성오

영상장비임차 인터렉션랩(대표 윤민철)

홍보·마케팅 총괄 박보영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이송이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9기 박예지 이예분 임도희

최나윤 황수빈 황지연

연습·공연사진 김신중

기록영상 연두픽처스(대표 조윤수)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대표 김은총)

옥외광고 영기획(대표 서성원)

홍보물 인쇄 인타임(대표 김중민)

티켓 김보전

매포 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송희

하우스·접근성매니저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임지는 송솔 김지수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문체팀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고혜진

김연정 김지이 윤예진 이지은 박주은

수어통역안내원 강명희 고선경 김경은 안강숙 이가람

이동진행도우미 박채은 서채영

프로그램북 디자인 하이비스튜디오HYBR

(대표 권혁배 윤서진)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대표 신동복)

[창작감각: 연출] 운영위원 전강희

작품개발 책임총괄 지민주

작품개발 프로듀서 조유림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김훈일 김정연

제작진행 정예림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스마트폰의 인터넷/카메라
앱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하세요.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약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 할인(전등금,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매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금, 본인 1매 한)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2022년



·강혜진·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강현우·

<세인트 조앤>



·김세환·

<엔젤스 인 아메리카>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김수량·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세인트 조앤>



·김시영·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엘리스 인 베드>



·김예은·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스카펄>

시즌 단원이



·박용우·

<엔젤스 인 아메리카>
<채식주의자>



·서지우·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안창현·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스카펄>



·윤성원·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조앤>



• 권은혜 •

〈엔젤스 인 아메리카〉
〈엘리스 인 베드〉



• 김광덕 •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엘리스 인 베드〉



• 김다현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세인트 조앤〉



• 김명기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스카펄〉



• 문은주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 박용수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조앤〉

국립 극단과



• 이혜미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 정대진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 정슬기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 신사랑 •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엘리스 인 베드〉



• 이동준 •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조앤〉



• 이은정 •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함께 합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나, 여전히, 여기 있어."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